

## 退溪李滉의 『心經附註』 연구와 그의 心學의 특징\*\*

申 龜 鉉\*

• 目 次 •

- |                                       |                          |
|---------------------------------------|--------------------------|
| I. 서 론                                | (2) 疑義에 대한 문인과의<br>문답 논변 |
| II. 본 론                               | (3) 讀書지도와 교육             |
| 1. 西山 眞德秀의 『心經』 편찬과<br>箕墩 丁敏政의 『心經附註』 | (4) 저술                   |
| 2. 퇴계 이황의 『心經附註』에<br>관한 연구            | 3. 이퇴계 心學의 내용과 특징        |
| (1) 『心經附註』의 구득과 탐독                    | III. 결 론                 |

### I. 서 론

정통 유가에 있어서 窮理와 居敬은 聖學을 실현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두 가지 방법이다. 퇴계는 이것을 나는 새의 두 날개와 구르는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한 바 있다. 두 날개와 바퀴가 동시에 움직여야 새가 날 수 있고 수레가 구를 수 있듯이 두 방법이 동시 내지 併進的으로 적용될 때 성학은 비로소 실현된다.

퇴계는 이러한 정통 유가의 성학이념과 방법론을 계승하여 자신의 철학을 형성 발전시켰다. 따라서 우리가 퇴계의 철학을 논구 천명함에 있어서 궁리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거경의 문제를 균형 있게 고찰하여야

\* 영남대 철학과 교수

\*\*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民族文化論叢』 제8호(1987) 게재논문

그의 철학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쪽의 연구에만 치우친다면 편모밖에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퇴계 연구는 공리의 문제에 편중되어 있었다.<sup>1)</sup>

이와 같은 퇴계학연구 경향을 벗어나서 퇴계 철학의 전모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경의 문제에 관한 연구가 보다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거경의 논리적 및 실천적인 근거와 토대가 바로 퇴계의 심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퇴계의 심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퇴계의 심학은 서산 진덕수가 편찬하고 황돈 정민정이 附註한 『심경부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므로 먼저 이 책의 내용을, 그리고 다음으로 퇴계의 이 책에 관한 연구 사실과 논저, 마지막으로 퇴계 심학의 내용과 특징 등을 설명하기로 한다.

## II. 본 론

### 1. 서산 진덕수의 『심경』 편찬과 황돈 정민정의 『심경부주』

진덕수(1178~1235)는 중국 宋代의 석학으로서 『西山甲乙稿』를 위시하여 많은 저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송대의 寧宗 때 軍國師가 된 韓侂胄가 정치를 전횡하면서 ‘僞學’이란 이름을 붙여 보급을 금지시

---

1) 이러한 사실은 『退溪學研究論放提要』, (서울: 퇴계학연구원 1986), 제53집에 수록된 논문을 분류 정리해 보면 확인된다. 理氣 性情을 주제로 한 논문을 공리의 문제로, 操存涵養을 주제로 한 논문을 거경의 문제로 분류한다면 『퇴계학연구논고제요』에는 공리의 문제를 연구한 논문이 약 40편, 거경을 연구한 논문이 약 19편, 거경 공리의 문제를 동시에 연구한 논문이 8편; 『퇴계학보』에는 공리에 관한 것이 약 24편, 거경에 관한 것이 약 12편, 거경 공리에 관한 것이 약 4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류 정리는 그 객관성과 엄밀성에 있어서 약간의 미비 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금까지의 퇴계학연구에 관한 대략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확고한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켰던 중국 근세 대유들의 서적을 해금하는데 힘써 송대 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sup>2)</sup>

정민정에 의하면 진덕수가 『심경』을 편찬한 동기는 性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인심이 물욕에 빠져 사람들은 이목이 추구하는 욕구의 실현에 운명을 걸고 의리는 오직 입에만 오르내리게 하는 것을 슬퍼한 데 있었다.<sup>3)</sup> 『심경』을 편찬한 시기는 진덕수가 두 번째로 泉州 太守에 재임해 있을 때였다.<sup>4)</sup> 그는 주로 四書 三經과 程朱의 글에서 心에 관한 격언을 뽑아 모아<sup>5)</sup> 총 37장 4권으로 『심경』을 편찬하였다.<sup>6)</sup> 이렇게 편찬

2) 『宋史』, (대만: 중화서국 1970ff.) 책19, 권437, 56-96쪽 참조.

3) 性學不明 人心涵溺 寄命于耳目 騰理于口舌 此 先生之所深悲 而心經所由述也. 『心經附註』, 목판본, 상권, 정민정의 심경부주서.

4) 晩再守泉 復集成是書. 앞의 책, 진서산의 心經贊에 대한 顏若愚의 後跋. 서산이 嘉定 6년(1213)에 첫 번째로 천주 태수에 부임하고 紹定 5년(1232)에 두 번째로 천주 태수에 임명되었다. 『송사』, 책19, 권437, 7a: 8b 참조. 서산의 제자 王邁는 “西山 先生 眞文忠公 心經一書… 乃先生 再修溫陵日所著”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나 [윤병태, “퇴계와 심경부주-퇴계書誌의 연구 其三”, 『한국의 철학』, 제8집,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79), 69쪽] 앞의 『송사』에서는 서산이 온릉 태수에 임명된 사실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또한 『중국고금지명대사전』, 臧勳齋 외, 제6판, [대만: 상무인서관 중화민국71(1982)]에도 온릉은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왕매의 기록이 혹시 착오가 아닌지 모르겠다.

5) 西山先生 眞文忠公 常摭取聖賢格言 爲心經一編, 앞의 책, 정민정의 심경부주서.

6) 37장은 다음의 12원전에서 취취하였다: 『서경』(1), 『시경』(2), 『주역』(5), 『논어』(3), 『중용』(2), 『대학』(2), 『樂記』(3), 『맹자』(12), 『周子』(2), 『정자』(1), 『范氏』(1), 『朱子』(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논총』 제8집 81-82쪽의 『시경』(3) 『중용』(1) 『朱子』(1)은 착오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 잡음]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삼경』에서 9장, 『사서』에서 18장, 『악기』에서 3장, 주자로부터 2장, 정자로부터 1장, 범씨로부터 1장, 朱子로부터 3장, 총합계 37장이다.

37장의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1

1. 『書』 大禹謨人心道心章 2. 『詩』 魯頌上帝臨女章 3. 大雅視爾于君子章 4. 『易』 乾九二閑邪存誠章 5. 坤六二敬以直內章 6. 損大象懲忿窒慾章 7. 益大象遷善改過章 8. 復初九不遠復章 9. 『論語』 子絕四章 10. 顏淵問仁章 11. 『中庸』 天命之爲性章 12. 詩潛雖伏矣章

한 『심경』을 그의 제자 안약우가 손으로 베껴서 낮에는 읽고 밤에는 사색을 하여 그 내용을 다소 이해하게 되자 그 초고를 端平元年(1234)에 郡學(천주)에서 간행하여 동료들과 면학하였다.<sup>7)</sup> 안약우가 서산이 편찬한 『심경』을 간행할 때 원문 37장 이외에 이 원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程朱를 위시한 13家の 설명 72절을 註로 삽입하였던 것 같다.<sup>8)</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산 진덕수에 의하여 편찬되고 안약우에 의하여 간행된 『심경』을 명대에 이르러 황돈 정민정이 다시 부주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안약우 간본에 삽입된 註가 원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였다.<sup>9)</sup> 그래서 그는 약 40家の 설명 329절을 더 보충하면서 특히 言敬之說로 상세한 주를 달았다.<sup>10)</sup> 둘째로, 이 『심경』 외에 『政經』이라는 서산의 저술이 있다. 그런데 『심경』에는 서산의 自贊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교정한 사실을 의심할 수 없으나 『정경』은 그렇지 않다. 이

## 권2

1. 『大學』 誠意章 2. 正心章 3. 『樂記』 禮樂不可斯須去身章 4. 君子反情和志章 5. 君子樂得其道章 6. 『孟子』 人皆有不忍人之心章 7. 矢人函人章 8. 赤子之心章

## 권3

1. 『孟子』 牛山之木章 2. 人仁心章 3. 無名之指章 4. 人之於身也兼所愛章 5. 鈞是人也章 6. 飢者甘食章 7. 魚我所欲章

## 券4

『孟子』 鷄鳴而起章 2. 養心章 3. 周子養心說 4. 『通書』 聖可學章 5. 程子視聽言動四箴 6. 范氏心箴 7. 朱子敬齋箴 8. 求放心齋銘 9. 尊德性齋銘.

7) 若愚……手抄此經 晝誦而夜思之 庶幾其萬一 復鋟板于郡學 與同志勉云 端平改元十月既望 後學顏若愚敬書. 『心經附註』, 上卷, 心經贊後跋.

8) ……凡程朱大儒 開示警切之言 多不在卷意 此經本出先生 而註則後人雜入之故耶. 『심경』, 상권, 정민정의 심경부주서. 13家 72절의 수는 다음과 같다: 朱子(32), 毛氏(1), 鄭氏(6), 程子(16), 伊川(8), 龜山梁氏(2), 新安王氏(1), 橫居(1), 楊氏(1), 孔氏(1), 梁氏(1), 南軒張氏(1).

9) ……齋居之暇 謹爲之參校 且附註其下. 앞과 같은 곳.

10) 정민정의 심경부주서 참조.

책은 비록 『경전』의 訓辭를 앞세우기는 하지만 漢晉隨唐代的 守書들의 사적과 서산이 여러 고을을 다스리면서 공고했던 글들을 함께 수록해서 『정경』이라 표제하였기 때문에 황돈은 결코 이 책을 『경전』이라 지칭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서산의 『경전』이나 『史書』에서 목민의 요법을 배껴 수시로 열람하기 위해서 비치한 자료를 후인이 모아 이 책을 만들어서 『심경』에 짝을 이루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心을 體라 하고 政을 用이라고 하여 거의 일가의 설을 이루기에 이르니 이것은 더욱 잘못이다. 왜냐하면 심에도 체와 용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정자와 주자가 밝힌 바 있으나 어떤 사람은 심만을 체라고 지칭하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인의 政은 반드시 수신에서부터 시작하여 齊家, 治國, 平天下로 나아가며 制禮作樂, 用人理財와 같은 것은 모두 정치의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경』은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국민을 禁戒하는 사항만을 수록하고 있는 점은 그 까닭을 알 수 없는 일이다.<sup>11)</sup> 그래서 황돈은 『심경』만을 부주하고 弘治 5년(1492)에 심경부주서와 심경후서를 작성하여 『심경부주』 전편을 손으로 써서 책을 매어 이 사실을 동지들에게 알리었다.<sup>12)</sup> 이 때 황돈의 제자 왕조가 이 원고의 간행을 요청하여 새로운 부주가 있는 현재의 『심경부주』가 출판되었다.<sup>13)</sup>

위와 같이 편찬, 부주, 간행된 『심경부주』는 그 사상 내용에 있어서 가까이는 周張程朱에서부터<sup>14)</sup> 멀리는 堯舜孔孟의 심학을 계승하였으므로<sup>15)</sup> 유가 심학의 正傳이요 고전으로 평가되고 인정되고 있다.

11) 『심경』, 하권, 汪祚의 識 참조.

12) 輒手錄成帙 以告同志. 앞의 책, 상권, 심경부주서.

13) 祚執經門下 敬訟之餘 不敢自私 請刻之 以惠後學 傳四方. 앞의 책, 하권, 심경서후.

14) 先生之心學 繇考亭 而溯濂洛洙泗之源. 앞의 책, 상권, 안약우후서.

15) 摭取聖賢格言 爲心經一編 首危微精一十有六言. 앞의 책, 상권, 정민정의 심경부주서.

## 2. 퇴계 이황의 『심경부주』에 관한 연구

### (1) 『심경부주』의 구득과 탐독

황돈이 새로 부주하여 간행(1492)한 『심경부주』는 즉시 한국에도 전파되어<sup>16)</sup> 중종 18년(1523) 이전에 이미 광주에서 간행된 사실이 확인된다.<sup>17)</sup> 한국의 유학은 세종 대에 『성리대전』이 전래·간행되어 理學 위주로 발전되다가 기묘사화(1519) 이후 심학 위주로 전향함에 따라 『심경부주』, 『근사록』, 『소학』 등의 책을 『성리대전』보다 더 중요한 교재로 사용하였으므로 새로 전래된 『심경부주』의 간행·반포를 위한 요구가 대단히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8)</sup> 이러한 사정은 송대의 이학이 명대의 심학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심경부주』가 간행되었던 것과 유사하다.<sup>19)</sup>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민정이 편찬한 『심경부주』의 光州 刊本이 중종 대에 보급되었던 것은 확실하다.

퇴계는 33세가 되어 泮宮에 유학할 때<sup>20)</sup> 여관에서 처음으로 『심경부주』를 보고 그것을 구득하였다.<sup>21)</sup> 그러나 그 註는 모두가 정주의 어

16) 한국에 정확히 언제 유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 같다. 『이조실록색인』 “심경” 항목에 표시된 각 권의 해당 지면의 기록에서는 『심경』의 유래연대가 확인되지 않는다. 尹南漢 교수는 그의 저서 『조선시대의 양명학 연구』, (서울: 집문당, 1982), 11쪽, 주 6의 도표에서 『심경부주』의 유래 연대를 1537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중종 18년(1523) 이전 한국에서 『심경부주』가 이미 간행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윤교수가 말하는 유래 연도는 믿을 수 없다.

17) 윤병태, “퇴계와 심경부주-퇴계서지의 연구 其三”, 앞의 책 71쪽 이하 참조.

18) 윤남한, 앞의 책, 21쪽 참조.

19) 앞의 책, 21쪽 참조.

20) 중종 28년(가정 12년=1533) 계사(선생 33세) 游泮宮. “퇴계선생언행통록권지육 연보 상”, 『증보 퇴계전서』, (서울: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원, 1971), 권4, 115쪽.

21) 滄少時 游學漢中 始見此書於逆旅 而求得之. “심경후론”, 『심경부주』, 하권, 퇴계가 처음 漢中에 유학한 것은 23세 때(중종 18년=가정 2년=1523)이었다. 是歲 先生始游太學. “퇴계선생언행통록권지육 연보 상”, 『증보 퇴계전서』, 권4, 114쪽. 그는 10년 뒤 중종 28년, 33세 때 두 번째로 반궁에 유학하였다. 이때 퇴계가 『심경』을 구득한 것으로 良齋 李德弘 “퇴도선생언행통록 권지이”에

록에서 발췌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句讀하기조차 어려워했으나 오직 퇴계만이 수개월 동안 문을 닫고 들어앉아 그 내용을 반복해서 깊이 연구하고, 또 실천의 결과를 통하여 그 의미를 체험하거나 그 의리의 정미함을 고찰하기도 하고 때로는 文義로 추리를 하거나 다른 책으로 참고하기도 하여 오래 사색한 뒤에 자연히 마음속으로 이해하기에 이르렀으며, 만약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 있더라도 억지로 알려고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가 얼마 후 다시 펼쳐 虛心玩味하였기 때문에 마침내는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sup>22)</sup>

이러한 『심경부주』에 관한 연구의 결과로 퇴계는 심학의 연원과 심법의 정미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신명과 같이 믿고 嚴父와 같이 존경하였으며<sup>23)</sup> 처음으로 심학에 감발 흥기한 것도 바로 이 책의 힘이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 책을 四書나 『근사록』에 못지 않다고 믿었다.<sup>24)</sup>

## (2) 疑義에 대한 문인과의 문답논변

퇴계는 『심경부주』를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연구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관심이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문인들과의 강독과 문답 논변에 힘입은 바 크다.<sup>25)</sup> 그가 문인들과 문답 논변한 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先生嘗游學泮宮 是時 初經己卯之變 人皆以學問爲忌諱 日以戲謔爲習 先生獨斂自持 動靜言行 一遵規繩… 嘗訪上舍姓黃 人始見心經附註 心甚愛之 授紙求得一本. 『증보 퇴계전서』, 권4, 23-24쪽.

- 22) 其爲註 皆程朱語錄 人見之 或不分句讀 唯先生閉門數月 沈潛反覆 或驗之踐履之實 或察之義理之精 或以文義推之 或以他書考之 久久思量 自然心會 如有不得者 亦不疆探力索 姑置一邊 時復拈出 虛心玩味 故未有不洞然處. 앞의 책, 같은 곳.
- 23) 先生自言 吾得心經 而後始知心學之淵源 心法之精微 故吾平生 信此書如神明 敬此書如嚴父. 앞의 책, 같은 곳.
- 24) 其初感發興起於此事者 此書之力也 故平生尊信此書 亦不在四子近思錄之下矣. “심경후론”. 『심경부주』, 하권.
- 25) 이러한 문답논변은 다음과 같은 퇴계의 서에서 볼 수 있다:  
答崔見叔, 答崔見叔問目, 『퇴전』, 권1, 344f.쪽; 答李叔獻問目, 같은 책, 377

용을 자구, 체제, 사상의 세 분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하자.

① 자구

字義에 대한 논변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심경부주』 3권 맹자 牛山章 小註에 魯齋 許氏가 爲學之初에 먼저 持敬의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모든 일에 “便索敬”이라고 한 말의 “索”자를 “求”자와 같은 의미로 보는 경우 文意의 파악에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極”자로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문인 황중거의 물음에 대해 퇴계는 그저 “求”자와 같은 뜻으로 보는 것이 좋으며 “極”자로 보면 의미는 더 緊着되는 것 같으나 이러한 일은 오히려 쓸데없는 곳에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한다.<sup>26)</sup> 4권 周子通書의 聖可學章 부주에 “只就這數字上厓去”라고 한 문장의 “厓”를 “挨”자로 보아서 “밀고 올라간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길 언덕”이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지의 물음에 대해서 퇴계는 이렇게 답한다: “厓”는 “挨”와 음이 같기 때문에 두 글자가 호용 되었을지도 모르며 “길 언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 못이다.<sup>27)</sup> 4권 朱子敬齋箴附註의 “如何解迫切”이란 문장 중의 “解”자는 “知”자의 의미로 해석하는지의 물음에 대해 “解”자는 “知”자의訓도 지니고 있으나 이 자리에서는 “爲”자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고 또 같은 곳의 “除非”란 표현은 본래 “只是”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으나 그 語勢가 마침내 “只是”라는 의미로 되돌아간다고 한다.<sup>28)</sup>

김언우가 권2 樂記章 附註의 “三十六■”이란 표현에 있어서 “■”이란 무엇인가라고 묻자 퇴계는 큰 수레바퀴를 의미하는 것이나 이러한 의미는 文意에 맞지 않으며 중국의 풍속이 이 글자를 빌어서 창살을 지칭한

쪽, 答李叔獻, 같은 책, 378ff.쪽; 答黃仲舉問目, 같은 책, 501ff.쪽; 答李剛而別紙, 같은 책, 530f.쪽; 答趙士敬問目, 같은 책, 570f.쪽; 答金彥遇問目, 『퇴전』, 권2, 58f.쪽; 答許美叔問目, 같은 책, 187쪽; 答李宏仲問目, 같은 책, 223f.쪽; 答李平叔, 같은 책, 259쪽.

26) 『퇴전』, 권1, 503쪽 참조.

27) 같은 곳 참조.

28) 같은 책, 504쪽 참조.



것과 같다고 한다.

답조사경 문목에는 부주 중의 어떤 글자가 그 부주를 인용한 출전에 서와는 달리 기록되었거나 또는 침삭된 것에 관한 논변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2권 正心章의 우환 공구를 설명하는 부주의 기록은 『대학』의 장구나 『대전』에서와는 달리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의 “都不得”이란 세 글자가 추가되었으며 이것은 전후의 文勢를 보면 부득이한 것이었다. 그런데 퇴계가 이 세 글자를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無可奈何)”는 의미로 해석 한데 대해 조사경이 이의를 제기하자 퇴계는 이를 재검토해 보고 자신의 견해가 잘못 되었다고 정정한다.<sup>29)</sup> 또 1권 경이 직내장 부주의 “有言未感時知如何所寓”라는 문장에서 “如”자는 『근사록』에는 없으나 『遺書』에는 있으니 이 字를 지워 버리기보다는 두 곳에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한다.<sup>30)</sup> 3권 人仁心也章의 “又謂一學者” 운운하는 부주에 “今公問學”이란 표현을 퇴계는 일찍이 『語類』에 의거하여 “問”자를 “門”자로 고쳐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明教는 “問”자가 옳다고 하였다. 그런데 부주에는 분명히 “問”자로 쓰여 있고 또 『語類』에는 “門人”을 “公門”으로 지적한 것이 적지 않으니 “公門”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후인들이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현의 문자를 고쳐서 자기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旬의 의미에 관한 논변의 예를 몇 가지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sup>31)</sup> 2권 君子樂得其道章의 부주 王信伯條에 伊川이 秦少游를 보고 “天若知也 和天瘦”란 말이 그대의 말인가라고 물은 데 대해 김언우가 퇴계에게 이 물음의 의미를 문목으로 질의하자 퇴계는 이 물음에 앞서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그것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길흉화복이 하늘에서 오는 것이지만 인간이 다만 그 사실을 함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 또한 무사하다. 만약 사람마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하늘에

29) 앞의 책, 570쪽 참조.

30) 같은 곳 참조.

31) 같은 책 571쪽 참조.

용서를 빌기에 바쁘다면 하늘도 그 고달픔을 견디지 못하여 여위게 될 것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의 설은 하늘이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하늘 또한 슬퍼해서 여위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두 설 중 앞의 설이 옳은 것 같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東坡의 僧伽塔詩 “每到有求神亦倦”이란 구의 뜻과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sup>32)</sup>

또 3권 우산지목장 부주의 “一串數珠”란 구에 대하여 “數珠”는 승가의 염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퇴계는 말한다. 중들은 염불을 하면서 이 구슬을 세면서 마음을 잡는 법으로 삼으니 본래 심법의 옳은 것은 아니나 항상 하나의 “中”자를 생각하다가 이 “中”자에 혼란 되기보다는 오히려 한 줄의 염주로 마음을 잡는 절도를 삼기만 못하니 염주를 세는 것이 中자를 외우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라고 한다.<sup>33)</sup>

4권 尊德性齋章 부주 答劉公度書條의 “杜撰捏合”이란 구의 의미를 퇴계는 이렇게 해석한다. 아무 사실도 없는데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이 “두 찬”이고 “날합”은 주어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공리를 하지 않고 학문을 하게 되면 모르는 것도 안다고 하게 될 것이므로 그 폐단은 반드시 사실이 없는 말을 만들어 내고 무의미한 일을 모아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게 되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한다.<sup>34)</sup>

위에서 고찰한 자구의 의의에 관한 퇴계와 문인들 간의 문답 논변은 일부분의 예에 불과하며 퇴계의 서간들 속에서는 이러한 논변들이 보다 더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위에서 예시된 것만으로도 퇴계가 『심경부주』의 한 자 한 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세심 정밀하게 연구하였는가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실은 또한 그가 理氣 심성에 관한 이론은 그 낱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한 그 사상을 마음속에 체득할 수 없다(未有不得於辭而求之於心也)는 그의 위학 자세를 잘 반영해 준다.

32) 『퇴전』, 권2, 58f.쪽 참조.

33) 같은 책 59쪽 참조.

34) 같은 곳 참조.

## ② 체제

『심경부주』는 진서산이 여러 경전에서 心에 관한 격언을 뽑아 모아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이나 『중용』과 같은 통일적인 체계를 갖고 있지 못했으나 황돈이 다시 부주를 함으로써 그 결함을 크게 보완하였다. 그러나 황돈은 사리를 통찰함이 분명하지 못하고 또 문장을 선택함이 정밀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진서산의 문장은 화려하지만 내용이 없고, 范蘭溪는 산만하여 요점이 흐려지며, 黃慈溪는 앞의 두 사람에 비해 더욱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伊川을 비판하면서 오만하게도 스스로 성인인체 하나 성현의 심법을 전수하는 요결에 관해서는 별로 들을 만한 말이 없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의 설은 모두가 大註에 배열되어 있고 程朱의 격언은 반대로 주석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기타의 취사선택도 부적당하고 또 황돈 자신이 부가설명한 말도 아무 발명하는 바 없으니 이 어찌 『심경부주』의 한 결점이 아니겠는가.<sup>35)</sup> 황중거는 『심경부주』를 이렇게 평가하고 퇴계에게 고칠 것은 고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서 내용과 체계를 정리하도록 건의하였다.

퇴계는 다음과 같은 조목 조목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건의를 거부한다.

첫째는, 『심경부주』에 인용된 여러 글들이 산만하고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점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다. 『대학』과 『중용』이 잘 정리되고 분명한 綱條脈絡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책들이 한 저자에 의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하다. 그러나 『논어』는 간혹 분류하여 기록한 곳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 뒤섞여 있고 『맹자』는 더욱 산만한 곳이 많아서 손쉬운 대로 편집이 되어 있으니 어찌 꼭 『중용』 『대학』만으로 표준을 삼을 수 있으랴. 더욱이 인용된 여러 글들은 시대의 선후가 있고 성현의 말씀은 또한 그 뜻이 차츰차츰 드러나고 밝혀져서 마침내 완비되는 것이니 어찌 꼭 그 글들을 類分한 뒤라야만 그렇게 되겠는가. 『대학』 평천하장을 정자가 일찍이 유분하였으나 주자는 그렇게 하면 의

35) 『퇴전』, 권1, 503쪽 참조.

미가 도리어 알아져서 옛날대로 뒤섞여 있는 것이 반복해서 연구하도록 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퇴계는 『심경부주』에 있어서도 사정은 이와 마찬가지로 한다.<sup>36)</sup>

둘째로, 황돈이 사리에 대한 통찰이 분명하지 못하고 문장의 선택이 정밀하지 못하다는 말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진서산의 논의는 때로 文章氣韻이 있기는 하더라도 그 인품이 대단히 고매하고 사리에 대한 통찰이 밝으며 학문에 대한 조예가 깊어서 朱門 이후의 제1인자이다. 범난계가 심학에 체득한 바 있음은 朱門도 인정한 사실이며 이것은 오직 그의 心箴 하나 때문만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문장이 화려하지만 내용이 없고 산만해서 긴절하지 못하다고 두 사람을 꾸짖으니 퇴계에게는 미안스럽다고 한다.<sup>37)</sup> 또 자계 황씨가 이천을 비난하는 말이 어느 책에 나오는지 알 수 없으나 『심경부주』에 수록된 그의 설명 2조는 이천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주보다 설명하지 못한 뜻을 발명한 것이니 그 2조의 言意는 忠厚懇惻한 것이 많다. 따라서 그것은 세상의 병폐를 치료하는 약석이다.<sup>38)</sup>

셋째로, 황돈이 앞의 세 사람의 말을 大註에 넣고 정주의 말을 小註에 넣은 것은 선택이 정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만 말에는 빈사와 주어가 있고 뜻에는 심천의 구별이 있기 때문이다.<sup>39)</sup>

넷째로, 황돈이 스스로 추가한 설명은 그것으로 도를 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제설을 거취한 이유를 밝혀서 이 註의 의의를 삼고자가 가벼이 지나치면서 말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부주의 설명 체제가 盛論이 된 것이 『심경부주』의 한 결점이다. 그러나 퇴계는 이 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결함이 없을지 모르겠다고 한다.<sup>40)</sup>

퇴계는 答李剛而 별지에서 황돈이 『심경부주』 말미에 존덕성을 주장

36) 같은 책, 504쪽 참조.

37) 같은 책, 505쪽 참조.

38) 같은 곳 참조.

39) 같은 곳 참조.

40) 같은 곳 참조.

하고 도문학 쪽을 억제한 것은 그 뜻이 세유들의 말하고 듣기만을 힘쓰고 실천을 소홀히 하는 폐단을 고치려는데 있었으니 만약 이것뿐이라면 그의 설이 비록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데 너무 지나치게 바로잡는 실수는 있으나 그런대로 무난하다. 그 뒤에 그는 다시 별도로 주자가 조년에는 상산을 공격하다가 만년에 그 잘못을 깨닫고 상산과 의견이 합치되었다는 일설을 확립하고 『道一編』을 지어서 이 설을 설명하려 하였으나 이 때 陳建이가 황돈의 속임수에 분개해서 『學部通辨』을 지어 황돈의 잘못을 배척하였다고 하나 퇴계는 이 두 책을 유감스럽게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황돈의 학이 마침내 陸學과 禪學에 빠진 사실은 숨길 수 없고 퇴계 당시 중국인들이 대개 불교의 설을 배워서 우리 東人을 도도히 끌어들이니 차츰 학문에 향하는 자가 빠져 들어가는 조짐이 많았다. 주자가 평일 육씨를 힘써 배제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황돈의 학술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심경부주』도 비난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심경부주』 끝에 인용된 주자가 존덕성을 중시하는 제설은 실제로 주자 자신이 중간에 도문학에 조금 치우침을 깨닫고 스스로 이를 경계하며 문인을 독려하여 大中至正의 도에 이를 것을 기약하기 위해서이며 육씨에 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황돈도 이곳에서 육씨의 설을 하나도 끌어들이지 않았으니 독자가 다만 여기서 세속을 바로 잡으려는 뜻만을 보고 이단에 돌아갈 염려만 없다면 『심경부주』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음은 옛과 다를 바 없으니 『도일편』 때문에 『심경부주』를 함께 의심해서는 안된다고 퇴계는 말한다.<sup>41)</sup>

조사경도 퇴계에게 『심경부주』를 수정보완할 것을 제의했으나 퇴계는 이것도 거부한다. 예를 들면 조사경은 『심경부주』에 인용된 四書 제장의 부주가 소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버리고 주자의 집주 장구의 설만을 채택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였으나 퇴계는 이렇게 해도 별 해는 없겠지만 다만 『심경부주』가 『사서』나 『근사록』과 같이 존중받으며 사용되는데 갑자기 개인의 뜻대로 고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41) 같은 책 530쪽 참조.

뿐만 아니라 마음에 미안스러워서 오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sup>42)</sup> 또 본주나 부주 가운데 衍字, 誤字, 인용문의 착오, 설명이 좋지 못한 것 등을 모두 색출 삭제하자는 제의에 퇴계는 古經典 중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으나 그들을 모두 삭제해 버리지 않고 다만 그 밑에 주를 달아서 교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대저 사람들의 소견이 같지 않고 호오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사람마다 자신의 의사대로 삭제한다면 오늘날에 전해진 고전은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을 터이니 그 해가 어찌 작겠느냐고 반문한다.<sup>43)</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계는 『심경부주』의 체제에 관해서도 깊이 연구하였으며 그것이 지닌 사소한 결함은 굳이 개편 보완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다만 “심경후론”만을 지어서 황돈이 시도했을지도 모를 朱陸早異晚同說의 왜곡을 분명히 천명해 두는데 그칠 뿐이다.

### ③ 사상

『심경부주』는 마음의 허렁한 본체와 그것의 微妙難見한 지각 활동은 물론, 遏人欲 存天理를 위한 精一執中과 存養省察의 방법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치밀한 논리성과 고도의 사변성을 지닌 분석과 추론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상에 관한 분석과 추론의 예를 몇 가지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심경부주』 우산장에 “마음은 비록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至靜함이 있으니 마음 가운데 저 紛紜한 것은 뜬 생각이고 간사한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사물과 交接할 때 이끌려 갈 뿐이다. 비록 백 가지 생각이 번거롭게 뒤흔들어도 至靜한 것은 참으로 自若하다.”<sup>44)</sup>라는 부주로 삽입된 범난계의 설명에 대해 최견숙이 퇴계에게 “마음은 하나인데 분운한 것은 어떤 것이며 지정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의 신명함은

42) 같은 책, 562쪽 참조.

43) 같은 책, 562쪽 참조.

44) 『심경부주』, 하권; 『퇴진』, 권1, 244쪽. 蘭溪范氏曰 心雖未嘗不動 彼紛紜于中者 浮念耳 邪思耳 物交而引之耳 雖百慮煩擾 而所謂至靜者 固自若也.

헤아릴 수 없이 변화하고 멀리 유동하기 때문에 잡으면 머물러 있어서 靜하고 놓아두면 흩어져서 혼미해지니 때로는 집중하고 때로는 산만함이 잡거나 놓아두는 차이에 있는 것이지 마음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만일 백 가지 생각이 어지러워도 至靜한 것은 자약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方寸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 이 말의 뜻이 어떠합니까?”<sup>45)</sup>라고 문의하였을 때 퇴계는 “범난계의 말이 더욱 의심스럽다. 무릇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하는 것은 마음이 체용이고 별개의 마음이 하나 더 있어서 어지럽게 떠돌아다니는 생각 속에 지정 자약한 것은 아니다. 질문한 말은 내가 평일에 의심하던 곳을 바로 지적하였으나 이제 쉽사리 설명을 해서 치밀하게 사색을 하는데 잘못된 말을 들려 줄 수 없으므로 마땅히 다시 상세히 연구해서 나중에 회답을 하겠요.”<sup>46)</sup>라고 대답한다.

진서산이 『심경』 贊에서 “道心伊何 根於性命 曰義曰仁曰中曰正”<sup>47)</sup>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이굉중이 퇴계에게 “의를 인보다 먼저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sup>48)</sup>라고 물으니(보통은 仁義禮智라고 말하는데) 퇴계는 “무릇 마음은 근본에서 비롯하여 말단에 이르는 것이 있고 용에서 비롯하여 體에 도달하는 것이 있으니 ‘曰義曰仁’이라는 말은 용에서 비롯하여 체에 이르는 말이거나 혹은 우연히 읽기에 편리한대로 문자를 취한 것인지도 모르겠다.”<sup>49)</sup>고 대답한다.

이굉중이 이어서 “禮智를 말하지 않고 중정을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sup>50)</sup>라고 물으니 퇴계는 이렇게 대답한다: “주자가 일찍이 이를 논해서 말하기를 중정이란 표현이 더욱 친절하다. 중은 예가 알맞은 정도를 얻은 곳이고, 정은 지가 정당성을 지니는 곳이니 禮智란 말은 그 뜻이

45) 『퇴전』, 권1, 344쪽.

46) 『심경부주』, 상권.

47) 『심경부주』, 상권.

48) 『퇴전』, 권2, 223쪽.

49) 같은 곳.

50) 같은 곳.

더욱 포괄적이거나 중정이란 말은 적절하고 충실하다. 또 예라고 하면 혹 알맞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으나 중이라고 한다면 과불급이 없어서 非禮의 禮가 없으니 바로 節文恰好處이다. 智라고 하면 혹 正과 不正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 正이라고 하면 시비가 端的 분명하니 바로 지의 충실함이다.”<sup>51)</sup> “이 네 가지(義仁中正)를 말할 때 어떤 이는 情, 어떤 이는 陰陽, 어떤 이는 存心制事라고 하나 이것은 正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sup>52)</sup>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것은 性情을 겸해서 말하는 것이고 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 음양으로 말하는 것은 음양이 곧 이 四者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음양에 의해서 四者의 動靜을 나눌 뿐이다.”<sup>53)</sup>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動이 되고 무엇이 靜이 됩니까?”라고 반문하자 “太極圖說解에는 正과 義를 체로 삼고 中과 仁으로써 용을 삼았으며 答南軒 東萊 兩書에는 다 中과 仁을 체로 삼고 正과 義를 용으로 삼았다.”<sup>54)</sup>고 한다.

앞에서 지적된 “몇 가지 理說 중 어떤 것이 장점이 있으며 왜 일정한 이론이 없는가?”<sup>55)</sup>라는 반문에 대해 “서로가 체용이 되어도 방해되지 않기 때문이다.”<sup>56)</sup>라고 대답하면서 퇴계 자신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해답을 찾던 중 앞에서 지적된 설명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 그는 태극도설의 立天之道章 소주에 있는 주자와 어떤 사람과의 문답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어떤 이가 주자에게 ‘인이 용이 되고 의가 체가 되나 만약 체용으로 논한다면 인이 체가 되고 의가 용이 됩니까?’라고 물으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그렇다. 인이 체가 되고 의가 용이 된다. 대개 인의중정이 각기 체용이 있으니 예를 들면 惻

---

51) 같은 곳.

52) 같은 곳.

53) 같은 곳.

54) 같은 곳.

55) 같은 곳.

56) 같은 곳.



隱은 動이고 인은 정이며 수오는 동이고 의는 靜이다.’ 또 말하기를 ‘靜을 주로 한다는 것은 正과 義를 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이제 이 마음의 寂然無欲한 靜處에서 이르는 바 正義를 발견하고자 하니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다만 理의 일정한 체가 바로 이 正과 義이다.’라고 대답하였으니 이제 네 가지가 각각 체용이 있다는 설로 추리를 해 본다면 중과 인의 靜處를 체로 해서 말할 때 중과 인의 動處가 용이 되는 것이니 대개 네 가지는 모두가 다 스스로 체용을 갖고 있으므로 또한 서로 체용이 된다고 한다.”<sup>57)</sup> 이와 같은 예들은 『심경부주』의 사상에 관한 퇴계의 연구가 얼마나 철저하고 치밀했는가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 (3) 독서 지도와 교육

퇴계는 『심경부주』를 스스로 규칙적으로 학습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였다. 먼저 자신의 학습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퇴계의 제자 이덕홍이 일찍이 그를 모시고 樹谷에 있는 선생의 墳庵(先塋齋舍)에서 유숙했을 때 퇴계는 새벽에 일어나서 『심경부주』를 외우고 난 다음 『논어』를 강독하였다고 하며<sup>58)</sup> 이와 같이 『심경부주』를 외우는 학습을 그는 평생 동안 지속하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학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퇴계 자신의 심성을 계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그가 관직에 부임할 때 『심경부주』를 함께 갖고 가지 못해서 이러한 학습을 중단했을 때는 마치 嚴師益友를 잃어버린 것과 같았다고 술회한다.<sup>59)</sup> 또 그의 제자 김성일의 증언에 의하면 퇴계가 61세였던 신유년 겨울에 도산의 玩樂齋에 거

57) 같은 책, 223f.쪽.

58) 같은 책, 권4, 27쪽 참조. 德弘 嘗侍宿樹谷(先生墳庵) 先生鷄鳴而起 誦心經 因講論語…….

59) 心經 苟能潛心積功入道之門 不外於此 僕啓發於是經非一 今不携來 若失嚴師益友. 『퇴전』, 권2, 238. 퇴계가 급난수에게 이 편지를 보낸 계축년에는 연보에 의하면 4월에 대사성에 임명되어 체경 중에 있었음. 『퇴전』, 권4, 123쪽 참조.

처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반드시 한 차례 큰 소리로 책을 읽었으며 그것을 들어보니 바로 『심경부주』였다고 한다.<sup>60)</sup> 이러한 사실은 퇴계가 자신을 위해 심경부주의 학습을 일생 동안 계속하였으며 특히 이른 새벽에 『심경부주』를 통독하는 것으로부터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퇴계의 제자들을 위한 『심경부주』의 학습 지도는 어떠한가? 『언행록』 교인 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 “선생이 사람을 가르칠 때 먼저 『소학』 및 『대학』 그 다음에 『심경부주』, 그 다음에 『語·孟』 그리고 『주서』, 그 뒤에 제 『경전』에 이르렀다.”<sup>61)</sup> 또 그의 제자 金晬가 『소학』, 『근사록』, 『심경부주』 중 어느 책이 초학자들에게 가장 적절한가고 물었을 때 퇴계는 이렇게 대답한다: “『소학』은 체용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 읽지 않을 수 없고, 『근사록』은 의리의 정미함을 비록 상세히 설명하기는 하지마는 초학자들을 경계하고 분발케 하는 곳이 없으니, 초학자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심경부주』 한 권 보다 더 적절한 것이 없다.”<sup>62)</sup> 그러나 퇴계는 『심경부주』를 결코 어린 학생들에게는 학습시키지 않고 이들에게 『소학』과 같은 기초 교육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먼저 학습케 한 뒤에 일정한 연령과 지적인 성장에 도달한 뒤에 그것을 학습시켰다. 이에 대한 증거로 우리는 퇴계의 제자 曹光益이 벌써 13세 때 스승을 따라가서 『심경부주』를 배우기를 청했으나 퇴계는 그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소학』을 읽게 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sup>63)</sup>

또한 기성의 학자들이 성리서를 연구할 때에도 반드시 『심경부주』를 같이 읽어서 夾補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래서 그는 정유일에게 보낸

60) 『퇴전』, 권4, 24쪽 참조. 『연보』에 의하면 퇴계는 신유년에 61세였고, 정월에 관직에 임명되어 부임하려 가다가 낙마하여 병으로 사직하고 도산에 머무름. 같은 책, 129쪽 참조.

61) 앞의 책, 31쪽.

62) 앞의 책, 26쪽.

63) 앞의 책, 375쪽.

답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내 준 편지에 ‘요즘 『근사록』과 『주자서』를 읽어보니 그 즐거움이 옛과 같다’고 하는 말 참으로 좋은 일이다. 다시 마땅히 일부의 『심경』으로 아침 저녁에 외우고 익혀서 공부하는 문제를 곁들여 도운다면 정민정이 그의 심경부주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내를 막는 기둥, 지남판을 가진 수레, 어두운 곳을 밝혀 주는 거울’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모두 절실함을 몸소 알게 될 것이다.”<sup>64)</sup>

이와 같이 퇴계는 많은 친구나 제자들에게 『심경부주』의 학습을 권유하였다. 『도산급문제현록』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수만도 약 30명에 달하며 이외에도 서간을 통해 문답 논변한 사람 또한 상당한 수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심경부주』는 이해하기가 쉬운 책이 결코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는 여러 기회에 지적하였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퇴계가 조사경에게 보낸 답서에서 한양의 서생 이함형이 농운정사에 와서 유숙하는데 그는 성품이 탁 트이고 굳은 의지로 향학을 하므로 함께 있으니 도움이 되는 바가 많으며 아침 저녁으로 『심경부주』를 강론하고 정정하면서 다시금 이 책이 이해하기 쉽지 않음을 알았다고 말한다.<sup>65)</sup>

이 때문에 퇴계는 『심경부주』를 오랫동안 그리고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그 의미를 體認하도록 남을 권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평생을 그렇게 했다. 그러하여 그는 김부륵에게 보낸 답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심경』을 그대는 이미 대충 읽어보았을 터이니 그 책이 어떠한가? 그대가 만약 뜻이 있다면 모름지기 남에게 묻지 말고 이 『심경』에서 그 목적인 바를 구하여 말없이 앞을 향하여 공부를 더욱 더 할 것이며 오래 오래도록 몸에 배이게 익숙해지면 반드시 즐거워서 그만 둘 수 없는 곳이 있을 것이며 내가 감히 함께 엿볼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이다.”<sup>66)</sup> 이와 같이 퇴계는 『심경부주』를 오래도록 그리고 반복해서 읽고 그 사상이 몸에 스며들며 그 의미를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64) 『퇴전』, 권2, 28쪽.

65) 같은 책, 권4, 325쪽 참조.

66) 앞의 책, 권2, 62쪽.

권유하고 지도하였다.

#### (4) 저술

퇴계는 『심경부주』에 관한 체계적인 단행본을 저술한 바 없다. 그 대신 길고 짧은 논문과 서간을 통해 문답 논변한 자료는 상당히 많다. 이들을 전부 모아서 편집을 하면 한 권의 단행본이 되기에 충분할 것 같다. 그 중요한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 心統性情圖 및 그 圖說<sup>67)</sup>
- 2) 心經後論<sup>68)</sup>
- 3) 心無體用辯<sup>69)</sup>
- 4) 得其正 正其心 分體用之說 心不在焉 在軀殼 在視聽之辯<sup>70)</sup>
- 5) 白沙詩教 傳習錄抄傳 因書其後<sup>71)</sup>
- 6) 抄醫閻先生集 附白沙陽明抄後 復書其末<sup>72)</sup>
- 7) 答李剛而 別紙<sup>73)</sup>
- 8) 答趙士敬<sup>74)</sup>
- 9) 答黃仲舉 心經問目<sup>75)</sup>
- 10) 答李叔獻問目<sup>76)</sup>
- 11) 其他書簡

이러한 논문들 중 심통성정도 및 그 도설은 유가의 심학이론을 총집약하여 체계화한 것으로서 깊은 철학적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圖는

67) 聖學十圖中 第六心統性情圖 및 그 圖說. 『퇴전』, 권1, 204ff.쪽.

68) 『퇴전』, 권2, 326f. 참조.

69) 같은 책, 328ff.쪽.

70) 같은 책, 337쪽.

71) 같은 책, 335f.쪽.

72) 같은 책, 336쪽.

73) 같은 책, 권1, 530f.쪽.

74) 같은 책, 561ff.쪽.

75) 같은 책, 501-505쪽.

76) 같은 책, 373ff.쪽.

상, 중, 하의 삼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도는 마음이 성과 정을 통합하고 있으며 寂然히 움직이지 아니하는 마음이 성이며 이것이 마음의 체이고 감통하는 마음은 정이 되며 이것은 마음의 용이 된다는 사실을 밝힌다. 중도는 기품 가운데에 나아가서 본연의 성이 기품에 섞이지 아니한 것을 지적해 말한 것이니 자사의 천명지성, 맹자의 성선지성, 정자의 卽理之性 장자의 천지지성이 그 예이다. 하도는 理와 氣가 합한 것으로써 말한 것이니 공자의 相近之性, 장자의 기질지성이 그 예이다.

심경후론, 답이강이별지, 답조사경, 답황중거심경문목 등에서는 황돈 정민정이 서산 진덕수의 『심경』을 재편집한 『심경부주』가 체계의 구성, 註의 선택에 있어서 많은 결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불교와 육왕학의 영향을 입은 오초려와 정민정의 사상을 함께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존신을 받기 어렵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심경』과 『심경부주』 그 자체는 고전으로서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고 퇴계는 변호한다. 왜냐하면 『심경』과 『심경부주』의 원문은 모두가 고경전에서 발취한 것이며 부주도 모두가 송대 제현의 격언들이고 말미의 존덕성을 강조하는 한 조목도 바로 주자의 뜻 그대로이며, 그 외에 이를 근거로 하여 주자가 초년에 이 문제에 관해서 육상산과 의견을 달리했다가 말년에 다시 같이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머지의 논문들은 유가의 심학사상을 잘못 해석하거나 불가의 심학과 혼동하는데 대해 비판함으로써 유가의 심학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심무체용변은 이연방의 심무체용이란 주장이 옳지 못한 점을 선유들의 심유체용설을 인용하여 논박하고 있으며 백사시교 전습록초전 인서기후와 초의려선생집 부 백사양명초후 부서기말에서는 진백사와 왕양명의 심학이 靜을 위주로 하는 불가의 심학이지 敬을 위주로 하는 유가의 심학이 결코 아님을 논술하고 있다.

### 3. 이퇴계 심학의 내용과 특징

이퇴계 심학의 내용과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퇴계의 佛老

와 莊列 및 육왕학파의 심학에 대한 비판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퇴계심학의 내용과 특징을 다른 학파의 심학의 그것과 대비해서 더욱 뚜렷이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타학파의 심학에 대한 퇴계의 비판은 頓悟, 厭事求忘, 惡動耽靜에 집중된다.

백사시교변에서 퇴계는 “귀에 대고 가르치면 글자 하나 모르는 凡人도 곧 신묘한 곳에 이르게 할 수 있다.”<sup>77)</sup>라고 한 吳草廬의 말에 대해서 이것은 禪家 頓悟의 기틀이며 성학의 문도들에게는 이러한 법이 없다고 한다. 유가의 심학에서는 돈오가 아니라 격물치지를 悟道의 요체로 삼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퇴계는 육왕학파의 심학을 불가의 심학과 같은 것으로 평가하고 유가의 심학과 엄격히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朱陸二氏의 [理論이] 같지 않는 것은 같지 않는 데 뜻이 있는 까닭이 아니다. (같지 않으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유가이고 저 사람은 선가이며, 이 사람은 정직하고 저 사람은 간사하며, 이 사람은 공평하고 저 사람은 이기적이고 사납다.”<sup>78)</sup>

퇴계는 또 佛老學派가 마음 속의 有를 일체 枯槁寂滅시킨 뒤라야 학의 극치에 이른다고 하니 어찌 옳을 수 있으며<sup>79)</sup>, 저 莊列의 무리는 다만 일을 싫어하고 고요함만 구할 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도의 극치로 삼고자 하여 마침내 마음이 동정을 관통하고 사와 물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잊으려 해도 헛갈림만 더욱 발견하게 되며, 통쾌하게 끊어서 힘차게 없애 버리면 이리 저리 도망가고 간사하게 내쳐서 넓고 넓은 곳까지 내달리니 이 어찌 앉아서 잊어버리는 것이 도리어 앉아서 내달리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한다.<sup>80)</sup>

77) 『퇴전』, 권2, 332쪽.

78) 같은 책, 327쪽.

79) 같은 책, 71쪽…… 如佛老枯槁寂滅而後 爲學之至也 奚可哉.

80) 같은 곳.

이와 반대로 유가에서 일은 선악 대소 구분할 것 없이 모두 다 마음 가운데 두어서는 안된다고 할 때 이 ‘둔다(有)’는 글자는 달라붙고(泥着) 얽매임(係累)을 말하는 것이니 마음을 바로 잡고(正心), 서두르며(助長), 공을 계산하고(計功), 이를 피하는(謀利)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병통이 모두 다 여기에서 나오는 까닭으로 두어서는 안되나, 예를 들면 하루 세 번씩 내 몸을 살펴보는 것과 같은 有는 마음에 일을 두는 것이 곧 맹자가 말하는 바 ‘반드시 일삼는 바를 (마음에) 둔다’(必有事焉)고 할 때의 둬이니 이러한 둬(有)은 없애지 아니한다. 만약 이것까지도 아울러 없애 버리려고 한다면 요순우탕의 정일집중으로부터 (공자가 말한 극기복례의 네 가지 조목인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며 움직이지도 말라’라고 한 것이라든가 ‘남이 나에게 하도록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내 스스로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교훈에 대해서) 안회(字子淵)와 冉雍(字仲弓)이 이 말을 받들어 섬기겠다’고 한 일에 이르기까지 다 없애서 반드시 불가나 노장학파에서와 같이 마음을 바짝 마르게 하고 寂滅케 한 뒤라야 爲學의 극치에 이르게 될 것이니 이 어찌 옳겠는가라고 퇴계는 반문한다. 그러나 이 ‘일삼는다’는 한 글자의 뜻을 이해하기가 또한 어려우니 예를 들면 연평 선생이 말하는 바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의도적으로 아니하는 것도 아니다’(非着意 非不着意)라는 말이 이 ‘일삼는다’는 글자의 뜻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요할 때는 진리의 본연을 기르고, 움직일 때에는 인욕을 기미에서 끊어 버리며, 이와 같이 하여 참으로 오랫동안 힘을 쌓아 잘 무르익은 경지에 이르면 고요할 때는 마음이 비고 움직일 때는 마음이 발라서 일상생활에 비록 백 번 일어나고 백 번 사라져도 참으로 그대로여서 쓸데없는 생각은 나의 근심이 되지 못한다라고 퇴계는 설명한다.<sup>81)</sup>

대저 사람들은 다만 마음이 사물에 감염되어 해를 입는 것만 보고 드디어 사물이 마음에 해가 된다고 말하는 까닭으로 일을 싫어하고 잊기를 구하며,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고요함을 탐내니, 노불의 학도들뿐만

---

81) 같은 곳.

아니라 유가의 학도들도 자칫 잘못하면 空寂에 빠지기 쉽다. 유가에 있어서는 靜坐의 학이 二程先生에서 시작되었으며 학자가 마음이 흔들림을 많이 걱정하기 때문에 이 정좌의 뜻을 발명하게 되었으니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약을 가르치려는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조금만 어긋나면 선에 빠지기 쉽다.<sup>82)</sup> 그래서 二程先生의 말은 禪에 가까운 것으로 의심을 받았으나 연평과 주자에 있어서는 심학의 본원이 되고 禪은 아니다.<sup>83)</sup>

그러나 정주학과에서는 그들의 정좌를 불교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敬으로 대체한다. 불교의 정은 동을 근원적으로 배제하나 경은 동과 정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따라서 경은 일면적으로 고정하여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자는 경을 主一無適, 整齊嚴肅, 上蔡 謝氏는 常惺惺, 和靖 尹氏는 其心收斂 不容一物 등으로 정의를 하였으나<sup>84)</sup> 주자는 이 네 가지 정의를 모두 함께 묶어 四箇條說을 확립하였다.

그래서 퇴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학문을 할 때 일이 있던 없던, 뜻이 있던 없던, 오직 마땅히 경으로써 주로 하여 動하고 靜할 때에도 [그 敬을] 잃지 아니하면 생각이 솟아나지 않을 때에는 마음의 체가 허하고 밝으며, 마음의 본령이 깊고 순수하며, 생각이 이미 발했을 때 의리가 밝게 드러나며, 물욕이 없어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근심이 차츰 적어지며 이러한 분수가 쌓여서 성과가 있게 하는데 이르게 하는 것이 요법이다. 이제 이렇게 하기를 힘쓰지 않고 사물을 응접할 때 자연히 마음이 생기는 것이 옳다고 하면 이것은 일이 없을 때 생각을 완전히 끊어 없애려 함이다. 意思가 있는 것이 마음에 해가 된다면 이는 반드시 성인이 아무 의도 없이 생각해야 마음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하고 자 함이다. 생각을 끊고자 함은 座忘에 가깝고 의도 없이 생각하는 것은 大賢以下가 경중 뛰어서 이를 수 없는 일이니 모두가 잘못된 것 같

82) 같은 책, 260쪽 참조.

83) 같은 책, 336쪽 참조.

84) 『심경』, 목판본, 권상, 敬以直內章 부주 참조.



다.<sup>85)</sup>

따라서 경에만 전념하여 오랫동안 힘을 쌓아서 언젠가 깨달음이 있으면 마음이 사물에 대해서 그 사물이 다가오지 않으면 미리 나가서 맞아 오지 않으며, 사물이 다가왔을 때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비추어 주고, 이렇게 한 뒤에 그 사물을 마음 속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므로 마음의 본체는 명경지수와 같이 맑아서 비록 하루에 만사를 접하더라도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일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니, 사물이 마음에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sup>86)</sup>

경을 유지하는 요법에 대한 金敦敍의 물음에 관해서 퇴계는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대답한다.

심중에 한가지 일이라도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 持敬의 요법이니 윤회정이 전해 주는 程門의 旨訣이다. 대저 여러 가지 이치를 갖추고 만사에 응하는 것이 마음인데 이제 한 가지 일도 마음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니 그 말이 심히 이상한 것 같아 그대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며 또 좋은 일 역시 항상 마음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말을 의심하여 그렇게 하기에 이르도록 궁구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아니하다. 예컨대 이 어리석은 사람의 견해도 역시 이미 한 가지 일이라도 마음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 어찌 일의 선악을 가리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비록 선한 일이라도 참으로 틀끝만큼도 집착해서는 안된다. 어떻게 그러함을 밝힐 수 있겠는가?<sup>87)</sup>

퇴계는 이렇게 자문하고 먼저 정자와 연평의 설명을 인용하여 대답한다.

옛날에 정선생이 말씀하되 ‘자기를 별주고 꾸짖는 일은 없을 수 없으나 그러나 항상 마음에 머물러 있어서 후회스럽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

---

85) 『퇴전』, 권2, 70쪽 참조.

86) 같은 책, 64쪽 참조.

87) 같은 책, 63쪽.

으며 연평 선생이 일찍이 이 말을 인용하여 회암에게 훈계하기를 ‘만약 언제나 가슴속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한 덩어리의 私意를 쌓아 두는 것이니 이 점에 있어서 본원처에 나아가 추구하고 함양해서 차츰 차츰 밝게 하면 이러한 응어리진 것과 私意가 차츰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sup>88)</sup>

이러한 정자와 연평의 설을 인용하면서 퇴계는 또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무릇 자신을别주고 꾸짖는 일은 선단의 발로요 私意가 아니다. 그러나 이 한가지 일이 마음에 가로질러 있어서 풀어지지 않으면 私意나 나쁜 버릇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천리가 이를 용화시켜 흔적이 없어진 뒤에야 마음이 밝아질 것이다. 대개 사물은 마음의 병이 될 수 없으나 (마음에) 두면 병이 되기 때문에 좋고 나쁘거나 크고 작은 일을 말할 것 없이 한결같이 두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물어 온 바 도를 행하고 격물을 하고자 하는 유는 비록 惡念이 아니지만 마음에 두어서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로일 뿐이다. 또 사물이 다가오지 않았을 때 먼저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일이 이미 지나간 뒤에도 오랫동안 가슴 속에 남아 있어서 잊을 수 없다면 이 두 가지는 가슴속에 한 가지 일도 두어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심법이다. 무릇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일인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니되고 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사물이나 마음에 머무르게 해서 잊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 聖門의 학과 심법의 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sup>89)</sup>

이와 같이 持敬의 요법은 일상생활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의 자세를 확립한 다음 동정을 일관해서 이를 유지하는 것 외에 별다른 것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퇴계는 앞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다시 요약한다.

---

88) 같은 곳.

89) 같은 곳.

평상시 아무 일이 없는 상태가 본원을 함양하는 바탕이며 밖으로는 생각하는 것처럼 엄연하며 속으로는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는 또렷또렷할 때이다. 한 생각이 솟아날 때 단지 사념만을 막아서 璣만을 보존하면 될 뿐이며 모든 것을 없애서는 아니된다. 대개 일이 없을 때는 참으로 마땅히 정으로써 존양할 것이나 만일 꼭 생각을 해야 할 바가 있는 경우에는 생각이 하나로 집중되어 내달림이 없어야 이것이 바로 靜中動이니 이것은 마음을 갖는데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논하기를 일이 없을 때의 마음을 갖는 법은 한결같이 또렷또렷하게 깨어 있으면서 생각을 쉬지 아니하고 궁리하기를 쉬지 아니하면 이것은 움직이는데 치우치고 쉬이 없을 때이니 이것은 주자가 논한바 언제나 잠만 자고 깨지 아니하거나 언제나 움직이기만 하고 쉬지 아니하는 병이니 다 옳지 못한 것이다.<sup>90)</sup>

위에서 우리는 경의 네 가지 상이한 측면과 지경의 요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경을 실천함에 있어서 경의 어느 측면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는 초학자들에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경의 성패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경의 네 가지 측면 중 어느 하나의 측면에서 출발하든지간에 지경에 성공만 한다면 다른 세 측면이 다 거기에 연결이 된다. 그러나 각개의 측면에는 지경의 실천을 위해 난이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주자는 持敬을 하는데 모름지기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며 얼굴 모습과 말씨 위에 나아가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니<sup>91)</sup> 이것은 바로 정자가 말한 정제엄숙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퇴계는 四先生이 경을 말한 것 가운데 정자의 정제엄숙一段이 주자가 앞에서 말한 뜻의 출처이며 처음 배우는 사람이 마땅히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보다 더 적절한 것이 없다. 이로부터 들어가서 오랫동안 힘쓰고 공이 깊어져서 얻는 것이 있게 되면 다른 세 방면의 들어가는 곳이 모두 다 그 가운데 있음을 처음으로 믿을 수 있으니 나

90) 같은 책, 73쪽.

91) 같은 책, 225쪽 참조.

를 속이지 아니한다고 말한다.<sup>92)</sup>

위에서 살펴본 퇴계 심학의 내용과 타학파의 심학에 대한 그의 비판을 토대로 우리는 퇴계 심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퇴계의 심학은 돈오와 自悟를 부정하고 부단한 공리를 통한 격물치지를 悟道の 요체로 삼는다.

둘째로, 厭事求忘, 惡動耽靜의 일면에 빠지는 것을 배제하고 동정과 유무를 관통하는 敬을 위주로 한다.

셋째로, 경은 일면적인 것이 아니며 동정을 관통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을 갖고 있으나 어느 측면에서부터 출발하든지 간에 궁극에 가서는 다른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 Ⅲ.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경은 공리와 함께 퇴계의 철학을 형성하는 기초이며 이 거경에 관한 사상의 원천과 이론적인 토대는 바로 진서산의 『심경』과 황돈 정민정의 『심경부주』이다. 이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이 책을 엄부와 같이 존중하고 신명과 같이 믿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 책의 학습과 연구는 물론 그 내용과 사상을 일상생활에 있어서 실천하고 체험하는 노력을 그의 생애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와 같은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퇴계는 경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의 철학은 공리에만 치우친 口耳之學이나 실천 수양에만 치우친 頓超의 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의 철학은 공리와 거경을 병진적으로 그리고 상보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와 행의 균형과 중도를 유지

---

92) 같은 곳 참조.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철학은 또한 궁리와 거경을 두 가지의 필수 불가결한 방법으로 삼는 정통 유가의 성학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